

인터뷰 | 오리협회 김병은 회장

AI 종식 · 증오리 검정 강화 ·
의무자조금 연착륙 매진

“현장의 목소리를 가능한 많이 듣기 위해 회원들 간의 만남의 자리를 자주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한국오리협회 창립 이후 첫 외부인사 회장으로 취임한 제 11대 김병은 회장이 취임사를 통해 이 같이 말했다.

김병은 회장은 “오리협회의 첫 외부인사 회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돼 기쁘지만 한편으로 어깨가 무겁다”라며 “오리산업에 대해 회원들에 비해 많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가능한 현장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오리산업이 최근 AI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가능한 조기종식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편 침체된 오리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아 부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협회 활성화를 위해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오리협회는 사육분과, 계열유통분과, 부화분과, 토종오리분과로 구성돼 있는데 각 분과위원장들의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시도지회 활성화를 위해서도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오리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오리산업의 당면한 최우선 과제는 우선 AI의 조기종식으로 그 동안 AI로 인해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방향을 지원해 오리농가들이

안정적으로 오리를 키울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아울러 F1오리 근절, 증오리 검정업무 강화, 의무자조금이 연착륙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병은 회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 유통정책과, 총무과 등에서 35년간 근무했으며 총무과장, 인사과장, 감사담당관 등을 역임했다. 명예 퇴직 후에는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전무이사를 지내기도 했다.

▶ 축산신문 이희영 기자 [2015. 04. 10]

할랄 음식 오리고기는 허용

할랄 뜻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할랄(Halal)’은 ‘허락된 것’을 의미하는 아랍어로, 이슬람교도가 율법에 따라 먹거나 쓸 수 있는 제품을 일컫는다. 식재료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만 동물성 성분을 배제한 화장품, 생물체의 무늬가 들어가지 않은 의류 등에도 할랄 표시가 들어갈 수 있다.

최근 국내 식음료 업계는 할랄 식품 수출 준비에 한창이다. 하지만 할랄 음식으로 인증을 받는 기준은 무척 까다롭다. 알코올 · 돼지고기 · 피가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할랄 인증을 받을 수 없다. 반면 과일 · 채소 · 곡류 등 식물성 음식은 인증을 받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 할랄 뜻은 종교적인 이유와 건강을 모두 고려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식물성 음식이 동물성 음식보다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이유는 ‘지방의 차이’에 있다. 대개 식물성 음식은 불포화 지방, 동물성 음식은 포화지방

이 많다고 알려졌다. 포화지방은 우리 몸에 해로운 저밀도 콜레스테롤을 포함해 비만과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등의 질병을 유발한다. 반면 불포화지방은 몸에 좋은 고밀도 콜레스테롤(HDL)을 많이 포함해 심혈관계 질병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할랄 음식에서 동물성 음식이 모두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돼지고기를 제외한 오리고기, 닭고기, 달걀 등은 할랄으로 허용되는 음식이다. 동물 단백질은 식물성 식품에 부족한 아연, 철분 등의 영양소를 보충해 적당량 섭취하면 균형 있는 식단을 유지하는 데 도움된다. 동물 단백질은 몸의 면역력을 높이고 근육·뼈를 강화하는 기능도 갖고 있다.

▶ 조선닷컴 [2015. 04. 11]

오리농가, 입식시험용 산란계 구입 '애로'

AI(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살처분을 진행한 오리농가들이 입식시험에 사용되는 산란계를 구매하기 힘들어 재입식이 지연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정부의 SOP(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 상에는 발생농장과 예방적 살처분을 진행한 농장 중 양성판정을 받은 농장에 대해 이동제한이 해제되면 재입식을 위해 3주간 입식 시험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다. 이때 시험 가축으로는 산란계 중추(6~12주령)를 사용해 축사 당 최소 5수 이상을 입식해야 하는데, 오리 농가의 경우도 산

란계를 시험가축으로 사용해야 한다. 이는 닭이 오리보다 감수성이 높아 AI 판정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오리농가들이 입식시험에 사용되는 산란계를 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보통 입식시험을 위해서는 농장 하나 당 100수 정도의 산란계가 필요한데 물량이 적다보니 소량으로 구매할 수 있는 곳이 마땅치 않기 때문. 이에 AI 발생으로 살처분을 한 오리농가들은 입식시험을 위한 산란계 구매에 차질이 생기면서 재입식 시기가 늦춰지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한 오리농가는 입식시험을 위해 산란계를 구하는 데만 한 달이라는 기간이 소요됐고, 입식시험에 따른 혈청검사 결과를 기다리는데도 한 달이나 소요돼 재입식이 이뤄지기 까지 총 2달을 기다려야 했다.

문제는 또 있다. SOP에 따르면 입식시험을 위해서는 AI 비발생 지역의 산란계를 사용해야 하는데, 올해처럼 AI가 전국적으로 동시다발로 발생하면 산란계 구매가 더욱 힘들어진다는 것. 최근 열린 오리협회 정기총회에서는 이 같은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전남 영암의 한 오리농가는 “현재 정부의 SOP에는 입식시험에 6~12주령의 산란계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매가 힘들어 재입식까지의 기간이 지연된다”며 “소량으로 구매하려 하니 산란계 유통업체에서도 판매를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오리협회 차원에서 입식시험 농가를 위한 산란계 공동구매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농가들도 현재와 같은 AI 발생 상황에서는 시험가축을 구하기 힘든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입식지연에 따른 농가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오리협회 관계자는 “영남 지역이나 호남 지역의 경우 오리를 주로 사육하기에 산란계를 구입하기가 힘들고, 산란계 유통업자들에게 특정 주령만을 소량 구매하기 힘들어 재입식이 늦어지고 있다”며 “협회 차원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 한국농어민신문 안형준 기자 [2015. 04. 14]

몸 붓고 목 이물감 · 피로할 땐 ...
필수지방산 덩어리
Duck(오리) 좀 보세요!

오리고기의 영양학

오리의 약효는 오래전부터 인정을 받아왔다. 동의보감에 따르면 오리고기는 찬 성질을 갖고 있어 몸의 열을 내려주고 몸이 허(虛)할 때 이를 보하는 역할을 한다고 한다. 또한 체내 장기가 조화롭게 운용되도록 해주기도 한다. 중국 명나라의 별록에는 오리고기가 위를 튼튼하게 하고 소변이 잘 나오게 하며 몸의 부기를 가라앉혀 준다고 했다. 몸에 열이 나면서 가슴이 답답하거나 하면 오리고기를 먹었다고 한다.

본초강목에도 허약체질의 환자가 오리고기를 먹으면 기력을 회복하고, 혈액순환과 해독작용을 도와 고혈압, 동맥경화, 중풍 등의 순환기 질환자들에게도 좋다고 한다. 병후회복, 음주숙취, 정력증강, 위장장애 등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리가 왜 몸에 좋은지는 현대 사회에 들어와 과학적인 성분분석을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다. 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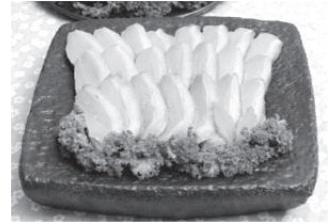
리고기는 불포화지방산의 함량이 높고 다른 동물성 식품들과 달리 리놀산이 다량 포함되어 있어 대사증후군 관련 질환 예방에 좋다.

또한 필수아미노산을 비롯한 비타민B1, 비타민B2, 비타민C, 비타민E 등이 있어 만성피로에도 도움을 줄 수 있고 체력저하를 막아주

고 집중력도 키워준다. 그리고 칼슘, 인, 칼륨 등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 영양학적으로도 좋은 식품이다.

특히 오리고기에 함유된 리놀산은 콜레스테롤 억제에 효과적이어서 결과적으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도록 하고 동맥경화, 고혈압 등의 심혈관계 질환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오리고기에 함유된 레시틴은 혈관에 엉겨 붙은 노폐물이나 기름덩어리 등을 분해해 도움을 주기 때문에 역시 우리 몸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레시틴은 뇌세포를 활성화시키는 역할도 한다.

체내에서 축적되는 독소 성분들은 수많은 질환의 근본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때 오리고기는 여러 독소성분을 배출시키는 데 효과가 있다. 오리고기는 신장 기능을 높여 우리 몸속의 각종 중금



오리고기(생것) 100g당 영양소

성분	함량
에너지	328kcal
수분	55.3g
단백질	16g
지질	27.6g
회분	1g
탄수화물	0.1g
칼슘	15mg
인	180mg
철	1.7mg
칼륨	233mg
나트륨	85mg
비타민A(레티놀)	6μg
비타민B1	0.21mg
비타민B2	0.31mg
니아신	3.9mg
비타민C	2mg

자료: 국가표준식품성분표

속들을 몸 바깥으로 빼내준다.

그러면 갑상선 질환에는 오리고기가 어떻게 작용할까. 갑상선 환자들은 목에 생기는 불편한 느낌으로 인해 힘들어 하기 쉽다. 목 부분의 임파절 순환 기능이 떨어져서 목 부위가 답답하고 이물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이때 오리고기는 임파절 순환을 도와 갑상선 질환으로 생기는 몸의 이물감을 해소해 준다. 또한 갑상선 환자들에서 자주 나타나는 기침이나 가래 등에도 효과적이다. 갑상선 질환에 걸리면 소화기, 간, 신장의 기능이 약화돼 소화기능이 떨어지고 몸이 붓는 증상이 많이 생긴다. 이때 오리고기는 단백질을 공급해주면서도 위장의 기능을 해하지 않고, 부종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어 좋다. 또한 갑상선기능항진증으로 허열이 생기고 몸의 진액이 부족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오리고기는 진액을 보충해준다. 갑상선기능저하증이나 갑상선기능항진증 환자들에게도 좋고 갑상선암 수술 후 보양식으로도 많은 효과가 있다.

한편 오리고기는 피부에도 좋다. 라이신, 발린 등의 아미노산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피부조직에 콜라겐을 공급하는 데 도움을 주므로 피부 건강에도 도움을 준다. 또한 오리고기의 불포화지방산도 피부를 윤택하게 해준다. 특히 갑상선 질환으로 피부 색깔이 어둡거나 칙칙해지고, 건조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오리고기는 도움이 될 수 있다.

오리고기는 불포화지방산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다른 동물성 식품에 비해 인기가 높지만, 너무 많이 먹을 경우 지나친 단백질, 지방 등으로 인체에 해가 될 수 있다. 결국 체중을 증가시키고 심혈관 질환에 노출될 수도 있다. 따라서 적당량을 먹는 것을 권장한다. 그럼에도 많은 육류 중에 오리고

기가 갖고 있는 여러 장점을 생각한다면 건강식으로 손색이 없다. 현대인들의 편중된 식습관에 균형된 영양분을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식품이다.

▶ 문화일보 이경택 기자 [2015. 04. 15]

[힐링 레시피] 오리고기 데리야키 볶음 & 오리고기 봄나물 생채

오늘 갑상선 질환에 도움이 되는 힐링레시피 주재료는 오리다. 오리는 단백질 식품이면서 다른 육류에 비해 불포화지방산이 높아, 건강에 좋은 단백질 급원 식품이다. 이외에 아연, 비타민B, C, 칼슘 등이 풍부하여 보양식으로 평가되고 있다. 첫 번째 요리는 오리고기 데리야키 볶음. 시중에서 판매하는 훈제오리에 여러 가지 채소류와 함께 데리야키소스를 넣어 볶으면 완성된다. 데리야키소스는 일종의 맛간장으로 음식의 감칠맛을 더해준다.

두 번째 요리는 오리봄나물생채. 훈제오리를 찌서 기름을 제거한 후 봄나물과 함께 겨자소스로 무쳐내면 된다. 봄나물의 상큼한 향기와 톡 쏘는 겨자소스와 더불어 오리고기의 담백한 맛이 어우러져 은근 중독되는 요리다.

김형미 연세세브란스 영양팀장은 “갑상선 질환에 대한 식사 조절은 기능 항진과 저하에 따라 조금씩은 다르지만, 균형식으로 섭취해야 하는 것이 기본이다”고 조언했다.

오리.소.식.

◇ 오리고기 데리야키 볶음

재료 : 훈제오리 300g, 데리야키소스 2큰술, 양파 1/2개, 빨강파프리카 1/3개, 노랑파프리카 1/3개, 새송이버섯 1개, 브로콜리 1/4송이, 카놀라유, 후추

데리야키소스 재료 : 간장 2컵, 맛술 2컵, 설탕 1컵, 양파 1/2개, 마늘 5알, 사과 1/2개, 대파 1대, 건표고 2개, 가쓰오부시 10g

만드는 법 :

1. 데리야키소스 재료 중 가쓰오부시만 빼고 냄비에 넣고 중불에서 끓인다.
2. 설탕이 녹을 때까지 저어가며 끓이고 1/3이 줄었을 때 건더기는 건져내고 가쓰오부시를 넣고 한번 끓여준다.
3. 가쓰오부시를 건져내고 중불에서 1/2로 줄인다.
4. 양파, 파프리카, 새송이는 사각형으로 썰어준다.
5. 훈제오리는 슬라이스한다.
6. 팬에 카놀라유를 두르고 양파를 살짝 볶다가 오리와 데리야키소스를 넣고 볶아준다.
7. 오리가 익으면 파프리카를 넣고 볶다가 후추를 살짝 뿌려준다.
8. 접시에 담아 마무리한다.
Tip. 데리야키소스는 냉장 보관한다.

◇ 오리고기 봄나물 생채

재료 : 훈제오리 300g, 참나물 40g, 양파 1/3개, 양상추 60g, 무순 10g, 연겨자 1/2큰술, 다진마늘 1작은술, 설탕 2큰술, 식초 2큰술, 참기름 1작은술, 소금 1/3작은술

만드는 법 :

1. 훈제오리는 슬라이스한다.

2. 참나물은 4cm 길이로 자른다.
3. 양파는 얇게 채 썰고 양상추도 1cm 폭으로 썬다.
4. 겨자소스 재료를 섞어서 양념을 만든다.
5. 훈제오리는 김 오른 찜기에 5분 정도 찌내어 기름을 살짝 제거한다.
6. 찌낸 오리를 그릇에 예쁘게 담고, 양파, 양상추, 무순을 섞어서 소복이 담는다.
7. 겨자소스를 뿌려낸다.

▶ 문화일보 [2015. 04. 15]

전북도, 오리 시 예찰검사 3단계로 강화

전북도는 4월 14일 오리의 조류인플루엔자(AI)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의 예찰 검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도는 이전 농가의 오리 출하 시 한차례 하던 검사를 농장 입식 전, 폐사체 발생 시, 도축장 출하 전 등 3단계에 걸쳐 정밀검사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입식 전 최소 10일 전에 검사하고 사육 중인 오리가 폐사하면 이를 수거해 검사하며 출하 시에는 최소 7일 전에 농가로부터 출하 통보를 받아 검사하기로 했다.

▶ 전주 연합뉴스 임청 기자 [2015. 04. 14]

“AI 지긋지긋” 오리사육농가, 겨울철 보상휴업제 ‘환영’

충북도, 정부에 건의 ...

“AI 집단발병-살처분 악순환 차단 가능”

조류인플루엔자(AI) 집단 발병을 막기 위해 ‘겨울철 오리 보상 휴업제’를 실시하자는 충북도의 대정부 건의에 대해 오리 사육농가들이 반기고 있다.

휴업에 따른 보상만 제대로 이뤄진다면 ‘살처분 전쟁’으로 해마다 홍역을 치르는 겨울철에 사육을 중단하는 것이 농가로서도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오리 사육농가들은 그동안 AI가 발생하면 오리를 모조리 살처분하는 고충을 겪어야 했고, 책임 소재에 따라서는 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살아 있는 오리를 집단 매몰하면서 겪는 트라우마도 사육농가만 알 수 있는 고충이었다. 정밀검사에서 AI 음성 반응이 나올 때까지 수개월간 재입식이 불허돼 일손을 놓아야 하는 것도 오리 사육농가로서는 고역이었다.

알을 부화시키는 종오리 농장이나 오리고기 가공업체의 사정까지 감안한 대책은 아니어서 좀 더 연구가 필요하고, 정부가 수용할지도 미지수지만 충북도가 건의한 겨울 보상 휴업제의 조속한 도입을 오리 사육농가들이 적극 지지하고 나선 이유다.

진천군 덕산면에서 육용 오리를 키우는 강종규씨는 “AI가 발생하면 사육농가뿐만 아니라 살처분 비용을 보전하는 국가적인 손해도 적지 않다”며

“휴업에 따른 보상만 적정하게 이뤄진다면 겨울철 사육을 자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월면의 홍경표씨도 보상 휴업제에 찬성했다. 홍씨는 “AI에 감염된 철새가 하천 곳곳을 누비기 때문에 AI가 토착화됐다”며 “겨울철에 보상을 조건으로 오리 사육을 중단하는 게 낫다”고 거들었다.

그는 3년 전 18만 마리의 육용 오리를 키우다 AI에 감염돼 살처분한 이후 지금까지 그 타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양계농가도 AI가 발생하면 큰 피해를 봤지만, 충북도가 보상 휴업제의 대상을 오리 사육농장으로 한정할 데 대해서는 큰 불만이 없다.

부화 후 45일이 지나 출하되는 오리나 달리 닭은 28일 만에 출하될 정도로 출하·재입식 기간이 짧아 자칫 휴업에 따른 농가 피해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박재철 대한양계협회 충북도지회장은 “닭은 출하 시기가 짧아 겨울철에 사육을 중단한다면 오리농장보다 큰 타격을 입게 된다”고 지적했다.

충북도 역시 AI 발생이 닭보다는 오리 사육농장에 집중되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닭이 감염되면 대부분 폐사해 AI 발생을 즉시 파악, 대응할 수 있지만 오리는 그렇지 않아 AI 확산을 제때 막을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산란율이 급감하는 종오리농장의 경우 AI 발생이 즉각 확인되지만 육용 오리는 AI에 감염되어도 폐사하지 않는 등 별다른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 때문에 AI가 무차별적으로 확산되기 일췌다.

도의 한 관계자는 “AI가 집단 발생한 지역은 모두 오리 사육농장 밀집지역”이라며 “이런 지역의 오리농가를 대상으로 보상 휴업제만 실시해

도 AI 발생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 봤다.

▶ 연합뉴스(청주) 심규석, 김형우 기자 [2015. 04. 16]

부산 북구, ‘만덕 오리불고기 축제’ 개최

부산 북구 만덕오리마을은 4월 18일부터 19일까지 2일간 만덕1터널 위 오리마을 주차장에서 맛있는 오리고기를 즐길 수 있는 ‘제4회 만덕 오리 불고기 축제’를 개최했다.

만덕 오리불고기 축제위원회 주최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개막식, 오리요리 무료시식회, 오리불고기 50% 할인행사, 노래자랑대회, 축하공연 및 걷기대회 등의 다채로운 행사들이 준비되었다.

또, 축제장을 찾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OX 퀴즈, 친환경 식물 가드닝 체험, 저염 케익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맛있는 오리불고기와 각종 체험으로 봄 향기를 만끽하고 힐링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계획했다. 조영환 만덕오리불고기 축제위원장은 “만덕오리 불고기 축제를 통해 주민에게 맛있는 오리고기와 풍부한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해 만덕오리마을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CNB뉴스 권이재 기자 [2015. 04. 17]

진천군, 오리농가 20여 곳 재입식 승인

충북 진천군 오리 사육농가 20여 곳이 옮겨올 조류 인플루엔자(AI) 발생 이후 처음으로 오리를 다시 기를 수 있게 됐다. 진천군은 지역 내 20여 개 오리농가가 충북도 축산위생연구소의 분변 검사 등에서 이상이 없어 재입식 승인을 했다고 4월 20일 밝혔다. 진천군은 앞서 지난 4월 14일 덕산면 방역대를 끝으로 이동제한을 모두 해제했다. 진천군 관계자는 “이번 재입식 승인을 한 오리농가는 계열회사에서 입식 계획서를 제출하고 특별방역기간 축산위생연구소의 분변 검사에서 음성으로 나온 곳”으로 “이들 농가에는 조만간 오리를 다시 기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음성군도 4월 20일 AI에 따른 이동제한을 전면 해제했다. 음성군 관계자는 “AI가 발생하지 않은 오리농가에서 15일 전 입식 계획서를 제출하면 축산위생연구소의 입식 검사에서 이상이 없으면 재입식 승인을 할 계획”이라며 “닭은 현재 입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음성군에는 현재 10개 오리농가에서 재입식 계획서를 제출했다. 현재로서는 진천군이 음성군보다 오리 재입식이 먼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진천군과 음성군의 오리 재입식 승인은 AI가 발생하지 않은 농가를 대상으로 했다. AI가 발생한 오리농가는 3주간의 입식시험을 거쳐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승인을 얻어야 재입식을 할 수 있다. 충북에서는 지난 2월 21일 음성군 맹동면 한 농가에서 육용오리 450여 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시작으로 지난달 23일 음성군 금왕읍을 마지막으로 음성군과 진천군(오리 3농가) 가금류 농가 42곳에서 AI가 발생해 오리 70만8,000여 마리가 살처분됐다.

▶ 뉴시스 강신욱 기자 [2015. 04. 20]